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

2019학년도 제5차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20. 1. 14(화) 13:00 ~ 16:25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9명) : 김해동,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학 교(3명) : 조기석 기획처장, 정송조 기획팀장, 서승희 교무학사팀장
 - 불 참(2명) : 채호석, 박연관
 - 회의지원(1명) : 엄종섭(기획팀)
4. 회의 안건
 -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 심의
 - 2020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예산(안) 자문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윤호숙 의장이 2019학년도 대학평의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의장 :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 관련 주무부서 관계자 출석을 요청할 계획임.

대 학 평 의 원 회								

○ 의장 : 2019학년도 제5차 회의 안건은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 ‘2020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예산(안)’ 등 총 3가지임. 다른 안건의 경우에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의견과 학교 당국 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임.

1)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의장 :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부 신설·통합·폐지, 학생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임. 규정 제정 관련하여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학부의 통합 및 폐지 이후 소속 교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며 내부에서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몇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의장 : 평의원들에게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함

○ 평의원 : 먼저 회의석상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의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는 느낌으로 알고 있는 상황임. 개인적인 의견과 주위에서 들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여러 장치가 현실적으로 미흡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도 사실임.

○ 평의원 : 전체적으로 과거 약 30년 간 한국의 대학 흐름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 흐름에 맞춰서 대학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가야한다면 가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소수의 구성원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음.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대학에 외국어계열이 있고 비 외국어계열 즉, 사회계열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신데 반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대학의 방향성을 외국어 전문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

○ 의장 : 평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전에 타 사이버대학 사례를 알아보았을 때 소위 메이저 사이버대학인 한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작년에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도 총장 지시로 시행하려고 했다가 결국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대학과는 달리 사회적인 흐름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 : 대학은 학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우리 대학이 외국어계열만 있게 되면 단과대 학원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고, 대학에서는 대학의 기본 성격인 전인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학생대표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임.
- 평의원 : 규정 제정(안) 제7조 제3항에 ‘학부(과)의 폐지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어 다른 학부(과)로 소속변경이 되지 않거나, 담당교과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50조 및 ‘교원인사 규정’ 제32조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항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함.
- 의장 : 「사립학교법」 제56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50조 및 ‘교원인사 규정’ 제32조 내용을 설명함.
- 평의원 : 학생대표 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학부가 통합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규정 제정(안)에 거의 없음. 사실이 규정의 내용은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원을 해임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의장 : 제시된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평의원분들에게 있는 상황임. 하지만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평의원 한분 한분의 생각이 지금 바로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 평의원 : 규정 제정(안)에는 학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이 전과를 한 이후 졸업시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음.
- 평의원 : 지난번 회의에서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 관련해서도 학생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 의장 :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싶음. 추후에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음.

(1시 28분 유정은 평의원 퇴장)

- 평의원 :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원장 재직시에 교육대학원 소속 한 학과에서 학과 폐지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며, 역으로 학과에서 요청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학과 폐지가 쉽지가 않았음. 학부 폐지의 전 단계가 학생 모집중지인데 학부나 대학원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모든 소속 학생들이 동의하는 것 이외에는 폐과 단계까지 갈 수가 없다고 알고 있음. 대학원의 경우 원적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보호 장치가 있음. 문제가 되는 교원 부분을 보았을 때 타 대학에서도 규정 제정(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다만 규정 제정(안) 제10조의 내용이 조금 강해보인다고 판단되며 보호 장치를 좀 더 마련하는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의원 : 학생 모집중지가 폐지 전 단계로 있는 상황에서 학생 모집중지 결정이 나오기 까지도 쉽지가 않음. 학부 통합은 학부 교수님들, 학생들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학생 모집중지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폐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 단계까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함. 역으로 학부가 잘안되는 경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함. 어떤 대학은 학생 모집중지 단계가 없는 대학도 있음. 예를 들어 제10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의 제청으로’ 문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로 수정하는 것처럼 교원들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평의원 : 한국외대에서는 학생 모집중지 등을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함. 규정 제정(안)을 보면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있고, 제6조 제3항에 ‘학부(과) 발전 가능성 및 대학 특성화도모를 검토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과연 누가 검토하는 것인지, ‘학부(과) 통합, 폐지 및 학생 모집중지를 유예할 수 있다.’ 에서는 누가 유예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평의원 : 타 대학 규정은 대부분 규정 제정(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상적으로 교무위원회 또는 학교발전위원회가 총장님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고 해당 소속 교수님들이 반대하는 등의 과정속에서 학교 당국과 해당 학과 교수님들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합의할 만한 (안)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대학원의 경우에는 3개년 동안 입학정원률이 일정 기준이 안되는 학과는 다른 대학원으로 정원을 준다 등의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음. 결국은 한국외대도 학문적인 정체성 및 중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 충원상황이 대학원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외대 학부는 대학원과 다르게 정원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수학생을 모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단위를 다르게 한다거나 학부의 명칭을 바꾸거나 하는 사례가 있음. 학교 당국에서 (안)을 마련하거나 반대로 학과에서 (안)을 마련하는 상황 모두 갈등구조가 있을 수 있음.
- 평의원 : 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트렌드에 따라서 학과를 변경하거나 개·폐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대학원 교수님들은 원 소속이 한국외대 학부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함.
- 평의원 :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소속이 대학원으로 돌아갈 곳이 없음. 단박에 학과를 폐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학생 모집중지 단계라고 알고 있음.

- 평의원 : 직권면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봄.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과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학과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이 4년차에 재학생 수가 200명이 안된다고 직권면직 시키겠다라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함.
- 의장 :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 7개 전문대학에 입시 홍보를 뛰었고 KERIS 등 외부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학회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학부만 작년 대비 입시 결과가 안좋은 상황임. 타 사이버대학에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사이버대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2~3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규정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준으로 학과를 조정한다고 함.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홍보비를 연 10억 가까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학에서도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이며 학부에만 맡겨 놓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입시 결과를 학부의 교수가 책임을 지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학부 교수들의 의욕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규정을 시행한다고 하면 위축이 되어 불안해서 그 다음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타 사이버대학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모든 사이버대학들이 우리 대학과 같은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프라인 대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임. 오프라인 대학들은 학과보다는 학교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비해 사이버대학은 학과 하나 하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임.
- 평의원 : 우리 대학을 개교할 당시 개설 학과는 한국외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5개 학과로 선정하였음. 대학 및 법인 경영진이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교육적 시스템 등 특성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오프라인 대학 기준으로 사이버외대를 바라보시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봄.
- 의장 :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님들 중에 단 한명도 열심히 안하는 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음. 방학도 없고 전 교수의 보직화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음. 경영진 입장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감. 올해가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수익을 가장 많이 내었으며 한 두명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함. 최고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함.
- 의장 : 입시에서 사회계열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2020 학년도 입학정원을 보면 사회계열 4개 학과 총 정원이 100명으로써 100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타 사이버대학은 학과가 많은데 비해 우리 대학은 외국어계열 외에 사회계열 학과가 4개로 학과 수가 적은 편임. 학생들이 교양이나 타 학과 수업을 들으면 교양을 대체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일본어학부 학생이 중국어학부 과목을 들을 수는 없지만 사회계열 수업은 들을 수 있음. 재등록률 수치를 뽑아 봤는데 입시 성과가 가장 낮은 학부가 재등록률 91.57%로 가장 높음.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올해 처음으로 재등록률 80%를 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학부 재등록률은 항상 90%가 넘고 있는데 재등록률도 고려하였는지 궁금함. 재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고 어떤 한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 의장 : 교무회의록에는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한 교수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생략되어 있어서 교무위원회 논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무위원회 간사를 출석 요청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들어보려고 함.
- 평의원 : 의견이 있었을텐데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 평의원 : 의장님과 학생대표 말씀대로 재정건정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지금 이 시점에 120억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하는 이 시점에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해임하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움. 학생대표 의견과 같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려가 되는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 제정(안)을 보면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제5조 제2항 ‘매 학년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써 물론 2020년이 될수도 있고 또는 4~5년 뒤에 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리 대학과 같은 환경이라면 매 학년도마다 재학생 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다음으로 제5조 제4항에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고, 교무회의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무회의록에는 ‘원안대로 통과함’ 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임. 제6조 제2항 제1호 ‘재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기준이 어떻게 수립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 학생수가 약 100명 일때도 손익분기점을 넘을것으로 생각함. 제6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재학생 충원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재학생 충원율’ 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고 우리 대학의 모집은 계열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별 인원이 별도로 없음. 예를 들어 일본어학부의 경우 아베문제도 있고 예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학생수가 확 감소한 사례가 있고 중국어학부의 경우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적게 뽑는 상황임.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것이 학교 평균에 전체 학부 중 절반은 넘을것

- 이고 절반은 못넘을텐데 10개 학부 중 5개 학부는 평균에 못미치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함. 또한, 제6조 제3항에서 누가 검토하는 것인지도 궁금함.
- 평의원 : 제7조 제2항 ‘폐지 학부(과)의 교원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관련 학부(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우리 대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첫 번째로 우리 대학은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학부가 없음. 두 번째로 우리 대학은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관련 학부가 없음. 제9조 ‘폐지 학부(과) 교원은 1회에 한하여 소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속 변경을 했는데 해당 학부가 마침 과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제11조 ‘학생 모집중지가 결정된 학부(과) 소속 교원은 재임용 및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 모든 조치가 기본적으로 사회계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 사회계열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몇 년 지나면 스페인어, 베트남 정도 조금 더 가면 중, 일, 한 그리고 더 가면 영어학부가 없어질수도 있겠지만 학생 모집중지가 결정된 학부(과) 소속 교원 중에서 재임용 및 승진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은 우리 대학 전체 16명 교원중에 1명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학생 모집중지 이후 단계가 폐지인데 폐지 학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학생 모집중지가 결정된 학부에 왜 이런 내용이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음.
 - 평의원 : 2월 초에 안건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규정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정도의 시간을 두고 중지를 모아서 규정 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을 요청드림.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다면 수정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특정인이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교원으로서의 바람임.
 - 평의원 : 규정 제정(안) 제6조에 보면 200명 미만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함. 사회계열 입학정원이 100명이고 학과당 25명이라고 가정해도 4년이면 100명인데 4년차 이후 재학생 수 200명 미만이라는 기준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 평의원 :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계획(안)도 반대했어도 계약 직전인 상황임. 규정 제정(안) 제10조도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11조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제11조는 삭제했으면 좋겠음. 제6조 제2항 제1호의 200명 기준을 우리 대학 내부 기준으로 손익분기점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여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제11조 내용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 모집중지 학과 교원을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 평의원 : 우리 대학이 정원 내로 1,600명을 뽑고 있는데 이 상황이면 사회계열 재학생 수가 800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신입생으로 보자면 년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 대학 편제로는 100명 이상 뽑을 수 없는 상황인데 200명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임.

○ 의장 : 교무학사팀장 출석을 요청함.

(2시 12분 서승희 교무학사팀장 입장)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

- 의장 :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교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반대입장이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결과를 보면 원안대로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문구만 보면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임. 원안대로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안이 무엇이고 반대의견이 없었는지 질의함.
- 교무학사팀장 : 교무회의록에는 ‘규정 신설에 대한 파급효과,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해 심의 및 논의하였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음.
- 의장 : 논의했다고만 되어 있지 반대의견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교무학사팀장 : 원안은 규정 제정(안) 전체 내용이 그대로 올라갔으며 교무위원 7분 중에서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2분이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한것임. 회의 마지막에 반대의견이 강하게 있으셔서 총장님께서 다음날까지 반대의견을 주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지만 별도 의견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규정 제정(안) 제6조에 있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하여 질의함.
- 교무학사팀장 : 해당 규정을 교무학사팀에서 만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음.
- 의장 : 우리 대학은 학생을 계열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학과별로 충원율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 평의원 분들의 생각임.
- 평의원 : 우리 대학에서 현재 과원이 되지 않는 학부나 학과가 있는지 궁금함.
- 교무학사팀장 : 문의하신 재학생 충원율은 기획처에서 만든것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산식으로 한다는것에 대해 전달받거나 관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움.
- 의장 : 과원이라는 것은 교수 충원이 우리 대학은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무학사팀장 : 우리 대학 교원수는 계열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계열 전체로 보았을 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임.
- 평의원 : 전체로 보았을 때 100%가 넘는 상황이지만 학과별로는 개념 자체가 없

는 상황에서 과원이 되지 않는 전공 유사성이 있는 학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음.

- 평의원 :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을 교무학사팀에서 만들었는지 질의함.
- 교무학사팀장 : 기획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재학생 증원율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함.

(2시 20분 서승희 교무학사팀장 퇴장)

- 의장 : 기획처장님 출석을 요청함.
- 평의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규정을 보면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이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폐과할 수 있음. 단,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1학기 신입입생 중 입학학기 최종성적 평균이 1.5 이상인 학생이 70명 이상인 경우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의장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가장 운영이 안되는 대학이며 메이저 사이버대학들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 대학이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는지 모르겠음.

(2시 23분 조기석 기획처장 입장)

- 의장 : 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규정을 보다 보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함.
- 평의원 : 사회계열에서 1년 동안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정원이 몇 명인지 질의함.
- 기획처장 :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는데 정원 내가 100명이며 정원 외 인원도 상당수 있음.
- 평의원 : 사회계열 입학정원이 100명이고 단순하게 4개 학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학과당 25명인데 200명이라는 기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함.
- 기획처장 : 그 부분은 총장님께서도 수차례 건의했음.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명시되어 있는 200명이라는 기준은 교육부의 교원 1인당 재학생 수 권고안을 반영된 것이라 판단됨. 지금 말씀 주신 입학정원에 관한 내용은 정원 내 관련 내용이고 정원 외 인원도 약 70명 정도는 충분히 뽑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작된 것이라고 생각함. 대학평의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해당 규정에 대

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의원 :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2월 4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안건이 논의되려면 금주 금요일까지는 상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기획처장 :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평의원 : 정원 내 100명 외에도 정원 외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정원 외는 사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대학 전체로는 정원 내 1,600명, 정원 외 약 1,700명 정도 되는데 약 1,700명 중에서 우리 대학에서 채우는 인원은 별로 안됨. 군 위탁 정원 500명 중에서도 5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체도 수백 명을 뽑을 수 있지만 항상 100명 이하임. 이러한 정원 외 인원을 채우는 것은 교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학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그러한 상황에서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하면 200명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잘되는 외국어계열에서 이미 채웠어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있음. 정원 외는 학교가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200명을 채우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 평의원 : 200명 기준은 손익분기점을 확인해서 손익분기점으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흑자가 나는 학과는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구하여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함. 200명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폐과를 결정하게 되면 흑자를 내고 있는 학과를 없애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함. 제11조의 경우 폐과 결정 이전에 학생 모집중지를 내릴 수 있는데 학생 모집중지 시 재임용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이 규정이 우리 학교에만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타 대학에서는 규정 신설 시 규정검토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학교도 그런 기구를 통하여 꼼꼼하고 상위법과 모순이 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교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10조도 꼭 필요한 조항인지 검토를 요청함.
- 의장 : 타 사이버대학 사례를 보았을 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안 작성은 어느 학교의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는지 질문함.
- 기획처장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외에도 여러 기관의 규정을 참고하였음.
- 평의원 :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대학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

- 기획처장 : 이사회에서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후 재상정하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 :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평의원 : 이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질의함.
- 기획처장 : 안전장치로써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의장 : 평의원들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도 수렴이 전혀 안된다고 느끼고 있음.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기획처장님께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함.
- 기획처장 :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평의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음.
- 의장 : 지난번 회의에서도 외부 평의원께서 대학평의원회의 무의미함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 다른 평의원분들의 생각도 비슷한 상황임. 총장님께서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수렴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대학평의원회의 근간부터 걱정이 되는 상황임. 이러한 의견을 간곡하게 전달해주기를 요청함.
- 평의원 : 규정 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절차 없이 곧바로 이사회에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함.
- 기획처장 : 규정상 기관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사항일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총장님께서 판단하여 대학평의원회 절차 없이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있는데 해임 대상이 되는 교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우리 대학에는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임. 우리 대학은 교원 충원율을 학부별로 하지 않고 대학 전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부가 이미 과원된 상태라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 모집중지가 되면 아무 학부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관련 학부(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는 문구도 한양사이버대학교나 경희사이버대학교처럼 학과가 많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학부가 없는 상황으로 학부가 폐지 대상이 되면 교원도 마찬가지로 해임이 될 수밖에 없음.
- 기획처장 : 우리 대학 학부에는 전공학부도 있지만 교양학부도 있음.
- 평의원 : 교양학부의 경우 시수를 운영할때 과목당 0.5만 인정해주는 상황임.
- 기획처장 : 관련 내용은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음. 시행

- 세척에 교양학부 교원의 의무시수를 정할 당시에는 폐과는 고려하지 않았었음.
- 평의원 : 지금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학부가 교양학부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교원이 유일하게 옮겨갈 수 있는 학부는 교양학부이며, 다시 말해 폐과 대상 학부 교원들은 모두 교양학부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교양학부에서 의무시수를 채우려면 업무는 2배로 과중되는 상황임.
 - 기획처장 : 우선적으로 학부가 폐지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시수나 운영 방법 등은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의장 : 과거에 구성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폐과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기관장의 판단으로 무리하게 감행하여 두 명의 교원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운영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 선례가 있었음. 교양과목이라고 누구나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임. 총장님의 판단도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기획처에서도 최소한의 손익을 정확하게 따져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규정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런 사전 작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정이 마련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개교 이래 수익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별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대는 것은 교원들의 의욕마저 꺾이게 만든다고 생각함. 사이버외대를 지난 17년 동안 누구보다도 아끼고 운영을 해왔는데 수치만으로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함. 학생 재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 부분은 왜 감안하지 않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교원들의 반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였고 구성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이사회에 올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평의원 : 만약 A 학과가 입시가 매우 저조하여 학생 모집중지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B 학과와 융합학과를 제안하여 새로운 학과를 만들었다면 A 학과 소속 교원은 학부 통합 다음해에는 재임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함.
 - 기획처장 : 미리 계획안을 제출한다면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함.
 - 평의원 : 그것은 규정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함. 현재 규정(안)은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아주 촘촘하고 탄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분들도 최소한 3년동안은 재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임.
 - 의장 : 규정도 규정이지만 실행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교무회의 직전에 의견을 급하게 수렴하는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혀안되고 있는 상황임.
 - 평의원 : 구조조정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에 대한 배려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총장님 모두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10조 문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의원 : 제11조를 보면 학생 모집중지가 폐과 결정의 선행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후임 기관장이 취임했을 때 이것을 규정대로만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결국 감정적 대립이 일어날 우려도 있는 만큼 위험한 조항이라고 생각함.
- 평의원 : 제5조 제2항에 ‘매 학년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고 하면 교원들의 부담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평의원 : 외부 인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음. 구성원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평의원 : 평의원분들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규정을 살펴보면 조항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임. 이사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의장 : 미숙한 안을 가지고 급하게 가시는 것 보다 다음 이사회로 안건 상정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면 함. 그렇다고 규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임.

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

- 의장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 대한 설명을 기획처장에게 요청함.
- 기획처장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 에 대하여 설명함.

<주요 질의응답 및 논의>

- 의장 : 의원들에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함
- 평의원 : K-스터디센터와 글로벌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함.
- 기획처장 : K-스터디센터는 한국어 트레이닝센터이고 글로벌센터는 현재 LA에 있는 미주글로벌센터에 대응하는 사이버한국외대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임. 추가로 글로벌센터는 해외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필요한 기구로써 LA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베트남 등 타 국가로의 확장도 고려하고 있음.
- 의장 : K-스터디센터와 글로벌센터의 역할이 겹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 기획처장 : K-스터디센터는 한국어학부 관련 기구이나 글로벌센터는 전 학부(과)에 모두 해당하는 조직임.
- 의장 : 우리 대학이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콘텐츠개발팀이 전략원 산하에 편성되는 것에 대해 그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됨. 사이버대학 내에서 콘텐츠

츠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인지 궁금함. 강의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도 콘텐츠인데 사이버대학 내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얼마나 고려한 것인지 의문임.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렇게 콘텐츠 개발팀의 위상을 낮추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가 됨.

- 기획처장 : 처나 원의 구분보다는 최신 트렌드 및 기술을 빠르게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함.
- 의장 : 신기술과 마이크로러닝 개발에 관한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함. 하지만 수업의 일환으로써 교수의 수업 역량이 콘텐츠에 잘 녹아들어야 하는데 원으로 다운시켜서 운영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며 연구소의 성격과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기획처장 : 콘텐츠개발팀은 이전에 온라인교육지원처로 있었다가 콘텐츠가 교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학처로 변경되었다가 콘텐츠 제작의 신기술 개발 필요성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의장 : 지난해 우리 대학이 수주한 외부 프로젝트 3개가 모두 콘텐츠 사업이었음.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고 업무량 또한 많은데 ‘원’ 정도의 수준에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임. 앞으로 더욱 키워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속 축소시키는 것인지 궁금함. 교육부에서도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 프로젝트 진행시에 외주업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음. 이렇게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고 내부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교원들도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획처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 평의원 : 개편안의 내용은 콘텐츠개발팀이 교학처로 편입되기 이전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온라인교육지원처가 이러닝혁신전략원으로 이름만 바뀐 인상인데 타 대학의 조직도를 고려해보더라도 매우 생소한 상황임. 어떤 목표로 개편안이 작성되었으며 신기술 개발과 전략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함.
- 기획처장 : 기존에 온라인교육지원처도 있었고 콘텐츠가 수업이고 내용상은 교학처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교학처로 변경되었음. 콘텐츠개발팀이 교학처에 편입되고 나서 교학처의 일이 너무 많아 분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음. 그런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하게 된 것이고 예전과 동일한 모델로 돌아가기보다는 혁신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원을 신설하게 된 것임.
- 의장 : 불과 6개월 전 조직개편 할때도 많은 구성원들이 콘텐츠개발팀이 교학처에 편입되면 교학처가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로드가 걸릴것이라서 우리 학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없이 개진하였으나 수렴되지 않았음. 지금 6개월전 우려가 그대로 발생한 상황임. 기획처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하실 때 구성원들의 의견

및 학부의 의견을 수렴해주기를 요청함.

- 평의원 : 이러닝혁신전략원이라는 명칭이 매우 생소하기도 하고 타 대학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닝은 약 20년 전에 사용한 용어로 이러닝혁신전략원보다는 콘텐츠개발팀의 위상을 살려서 콘텐츠개발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함.
- 평의원 : 이러닝혁신전략원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기획처장 : 이러닝혁신전략원은 처와 동급이며 보직은 처장과 같은 대우임.
- 평의원 : 그러면 이러닝혁신전략원장 밑에 연구소장, 센터장을 모두 발령을 내실 계획이신지 궁금함.
- 기획처장 : 연구소장이나 센터장 발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평의원 : 현재 이러닝혁신전략원의 업무를 임시로 콘텐츠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콘텐츠개발팀 안에서 미래교육연구소, 교수학습개발센터, 마이크로러닝센터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짐. 그렇다면 조직 개편 후속절차로 인원충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 평의원 : 그러한 구도라면 실제로 하는 일의 많고 적음과는 별개로 콘텐츠개발팀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함.
- 의장 : 부속기관에 대한 정의와 개념부터 바로 하고 싶음. 한국외대에서는 부속기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문함.
- 평의원 : 학문적 수요 또는 사회 수요에 맞추기 위해 대학에서 구성하는 특별한 기관으로서 외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받는 등 특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음. 사회적 수요와 변화에 따라서 통폐합을 통해 축소되거나 변화하기도 함.
- 의장 : 그렇다면 수업과 직접 관련된 일을 부속기관에서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 평의원 : 한국외대에서는 연구소에서도 교양수업 등 수업을 개설하기도 함. 타 대학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학교마다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음.
- 의장 : 콘텐츠개발팀의 위상을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기획처장 : 위상의 격상과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인원 충원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음.
- 의장 : 마이크로러닝센터의 경우 마이크로러닝이 정규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평생교육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마이크로러닝센터를 평생교육원 산하에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함.
- 의장 :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평의원 : 현재 콘텐츠개발팀은 설계부분, 제작부분, 미디어부분 등 전문분야에 따

라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의 부분이 하나의 업무로 보이지만 각 전문분야가 모여서 팀이 된 것임. 타 사이버대학의 사례를 보면 각 파트를 키워주는데 역량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디어를 예로 들면 콘텐츠 분야에서 미디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사이버대학들이 미디어 개발은 내부에서 100%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만 유독 외주랑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 개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떤 의도와 비전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구상하는 것인지 궁금함. 타 사이버대학은 지속적으로 내부 기술력을 확장시키면서 콘텐츠 개발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기획처장 : 미디어 관련해서는 이전 부총장이 부임한 후에 인원 충원이 많았었고 당시 추구했던 방향은 해외진출이 중요했던 상황이었음. 기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력 변동이 있었음. 총장님도 현재 신기술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발에 힘을 실는 방향과, 한양사이버대학교처럼 완전히 외주로 돌리고 학교에서는 관리만 하는 방향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관장의 경영 철학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 의장 :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음.

3) 2020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예산(안)

- 기획처장이 ‘2020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총칙, 주요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2020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예산(안) 자문을 진행함

<주요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 의장 : 평의원들에게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함
- 평의원 : K-MOOC, KERIS 콘텐츠 개발 사업 외부 연구 용역 항목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미인지 질의함.
- 기획처장 : K-MOOC 사업 관련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억을 받았으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임.
- 평의원 : 일반 용역비 중 외부 자문료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처장 : 콘텐츠 관련하여 외부 자문을 자주 받고 있음. 과목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한국외대 교수님 등 외부의 자문을 받고 있음.
- 평의원 : 장기차입금상환 항목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처장 :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관련 비용으로 토지 매입 금액이 120억 원임.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약 75억 원이고, 부족한 45억 원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용자를 받을 계획임. 2020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것이기에 예산에 반영한 것임.

- 평의원 : 아직 기채 신청은 안 한 것인지 질문함.
- 기획처장 :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채 신청은 승인이 난 상황이며, 교육부 승인 단계가 남아 있음. 교육부 승인 신청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일임. 만약 교육부 승인이 안 나오면 사업은 종료되며, 만약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서 조정하게 됨.
- 평의원 : 교육부의 승인이 안 나면 혹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것인지 질문함.
- 기획처장 :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함.
- 평의원 : 수익이 작년에 비해 19억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의함.
- 기획처장 : 수익이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음. 학생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함. 전년 대비 수익이 증가한 것은 콘텐츠 개발비, 홍보비, 장학금 등 모든 영역에 조금씩 분산되어 있음. 그 중에서 인건비와 홍보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 : 아직 사이버대학은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입학금이 23% 줄어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기획처장 :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임. 현재 정부의 입장은 30%는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70%를 3년에 걸쳐 23%씩 줄이라는 것임.
- 평의원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처장 : 총 사업 비용은 27억 원으로 약 3~4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음. 총학생회와 교수님들께서 주신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의장 : 사업 비용이 오픈베이스 계약과 연관이 있는것인지 질의함.
- 기획처장 :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시스템 운영 관련이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임.

(3시 55분 김해동 평의원 퇴장)

- 평의원 : 조교 인건비가 약 1,300만원 줄었고, 학부 운영비 및 학부 통신비 지원 항목도 2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구조조정 규정과 관련이 있는것인지 궁금함.
- 기획처장 : 해당 내용은 업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획팀장 출석을 요청하였음.

- 평의원 : 인건비는 자연승급분 제외하고 인상률을 어느정도 예상하여 편성하였는지 질문함.
- 기획처장 : 자연승급분 외에 직원은 3.5%, 교원은 3% 인상하는것으로 반영하였음. 실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의장 : 이렇게 남는 것으로 예상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교육과정을 줄이는 것인지 모르겠음.

(4시 00분 정송조 기획팀장 입장)

- 평의원 : 조교 인건비가 2020년에 약 1,300만원 줄었는데 조교를 줄이는 것인지 질의함.
- 기획팀장 : 교무학사팀에서 제출한 계획서에서 학부별 조교 배정 현황을 보면 영어학부 5명, 중국어학부 2명, 일본어학부 2명, 한국어학부 2.5명, 스페인어학부 1.5명,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2명, 경영회계학과 0.5명, 지방 행정·의회 학과 0.5명, 마케팅·광고학과 0.5명, 산업안전학과 0.5명, 교양학부 1명, 교수학습개발센터·평생교육원·미래교육연구소 1명임. 마케팅·광고학과와 산업안전학도가 2019학년도 2학기에 일시적으로 1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0.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
- 평의원 : 학부 운영비 및 학부 통신비 지원 금액이 25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팀장 : 학부 운영비 및 학부 통신비 지원 항목은 학부운영비, 학부 통신비, 학과 신설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학부 통신비의 경우 애초에 학부 통신비가 신설했을 때의 취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일부 맞지 않음. 학부 통신비를 신설한 이유는 학부장님과 학생들이 직접 연락을 하다 보니 그 통신량이 많아져서 학부별로 학생 응대를 위한 휴대폰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음. 초반에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다가 2~3년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장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서에서 해당 금액을 학부 운영비에 더하고 학부 통신비를 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임.
- 평의원 : 학부 통신비를 학부 운영비에 녹여서 준다면 학부 운영비의 액수가 늘어 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기획팀장 : 기존에 학부 운영비가 크게 변화했던 적이 있는데, 재등록률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비 계정을 없애면서 학부 운영비에 일부 반영하였음. 통신비 계정은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될 확률이 높음. 실제로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에서 보직자들

의 통신비가 지적받은 사례가 있음. 그래서 통신비 지원 규정을 만들었으며 해당 규정은 보직자들만 해당됨. 학부 통신비를 통신비 지원 규정에 반영할 것인지, 학부 통신비를 학부 운영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주무부서에서는 후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의원 : 총액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학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함. 250만 원 감소분은 학과 신설 준비금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함.
- 기획팀장 : 학부 운영비와 학부 통신비의 전체 합계 금액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의장 : 학부 및 대학원 콘텐츠 개발비가 5천만 원 정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팀장 : 콘텐츠가계정 항목은 등록금회계에서 2019학년도는 7억 8,600만이고 2020학년도는 9억 300만 원이기 때문에 콘텐츠 예산은 올해 증가함. 현재 교무학사팀에서 교육과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 연해서 지급이 됨. 콘텐츠 비용이 증가한 것은 2018학년도에 비해 2019학년도의 콘텐츠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콘텐츠 비용이 증가한 것임. 예를 들어 2019학년도에 교육과정 개발을 줄였다면 2020학년도의 콘텐츠 개발 비용이 줄어들게 됨. 비등록금회계 쪽은 KERIS나 K-MOOC와 같이 외부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유무에 따라 변동됨.
- 평의원 : 전출금에서 감가상각비 7억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팀장 : 감가상각비 2억 6백만원만은 사이버관을 40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5억은 기채 관련 원금 상환하는 것임.
- 평의원 : 직원급여 관련하여 인상률이 올해 3.5% 예상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직 수당 및 각종 제수당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기획팀장 : 보직 수당 부분에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1.4억중에 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함.
- 평의원 : 교원급여 인상률 3%는 예상 반영한 것인지 질의함.
- 기획팀장 : 급여 인상률을 예상 반영하는 이유는 법인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임. 직원급여의 경우에 임금 및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됨. 만약에 급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1% 인상이 결정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미리 지급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3년 전 정도부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더라도 다음해에 지급하라는 가이드를 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원급여 및 직원급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임.

- 평의원 : 만약에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3.5% 이상으로 체결이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도 그 초과분은 받기 어렵다는 의미인지 궁금함.
- 기획팀장 :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임금 및 단체교섭의 경우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총장님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체결이 되면 그 부분은 규정 상위에 있는 것이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음. 다만 예산 안정성 차원에서 법인에서 권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고사항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
- 의장 : 학부 조교 관련하여 교양학부는 1명인데 사회계열 4개학과는 왜 0.5명인지 궁금함. 사회계열 4개 학과가 입시 홍보 등 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기획처장 : 예전에는 처장실마다 조교가 있었는데 현재는 3개 처장실 모두 조교가 없음. 그래서 교양학부 조교를 풀타임으로 운용하면서 처장실 업무를 약간 보조하고 있는 상황임.
- 의장 : 입시 때 조교가 없으면 원활한 응대가 불가능함. 지원을 이렇게 계속 끊어가면서 입시 성과를 바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함. 입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교양학부에 1명으로 운용하는데 비해 학과에 조교를 0.5명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재학생 재등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학과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 의장 : 내부 구성원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임.
-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0학년도 본 예산(안) 자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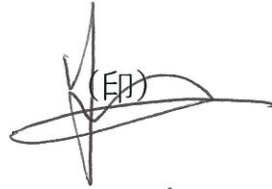
7. 폐회선언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2020년 1월 14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윤 호 숙

(인)


평 의 원 김 해 동

(인)


평 의 원 윤 이 식

(인)


평 의 원 원 종 민

(인)


평 의 원 김 병 철

(인)


평 의 원 김 수 진

(인)


평 의 원 최 서 연

(인)


평 의 원 이 범 선

(인)


평 의 원 유 정 은

(인)
